

대행 스님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어떻게 관하는 것인지요

질문 유튜브에서 큰스님 영상 법문을 보고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체를 관하라 하시는데 어떤 일체를 어떻게 관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찰나찰나 화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지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일체' 하죠. 그러니 지금 '일체 모두 놓고 관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나더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형성시켰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네가 나를 운전해 왔어. 진화시켰어. 형성시켰어. 그러니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 놓는다면, 앉으나 서나 바로 도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 자부처는 있는 것입니다. 자부처부터 알아야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을 해 주게 됩니다. 내 국토부터 다룰 줄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의 국토도 내 국토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예요.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거기에다가 또 남의 화두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뭣고' 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 년, 백 년을 가도 지금 시대에는 아니 된다 이거죠. 왜냐? 전자에는 그게 씨가 먹혔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또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이 전체, 머리에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죠. 밥 한 그릇 남이 준 거를 들고 '이 뭣고?' 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그거를 들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느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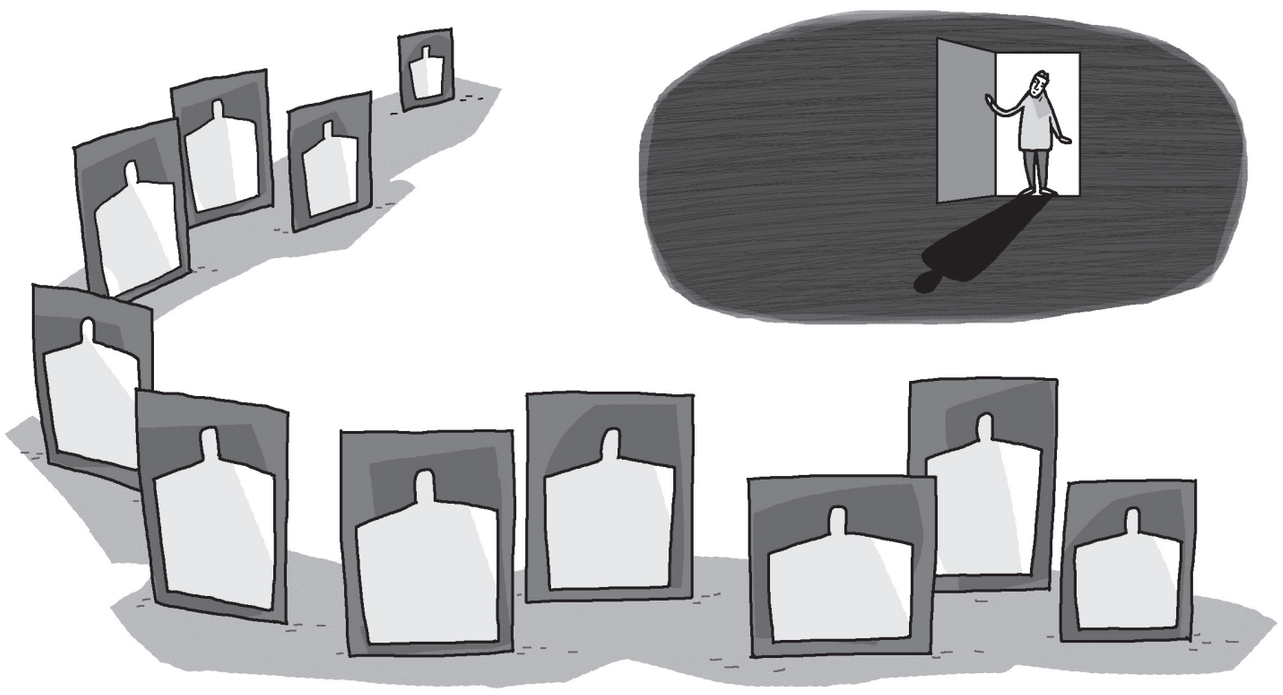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좌선을 할 때는 내 안으로 관한다면 그게 같이 들리지마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모든 소용돌이가 찰나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혹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루 8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좌선을 할 때에 관하라니까 화두를 들고 그것이 끊어질까 봐 애를 쓰고 '이게 뭣고?' 하는 게 관하는 건 줄 안다 이겁니다. 새 물이 들어오면서 헌 물은 배출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있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죠.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거늘, 그것은 무슨 소리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봐라. 그리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바로 중도에서 중용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게 관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며 내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며,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과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대천세계를 막론해 놓고,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과 도량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도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일차적으론 믿어야 한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둘째는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셋째, 거기서밖엔 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가오는 대로, 아프면 의사가 돼 주실 거고, 즉 약사가 된다 이겁니다.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거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 한 마음 안에서 그 모든 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생사에 뛰어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듯이.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끄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 자기한테 다 맡겨 놓고 믿는다면, 지켜본다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하나 오는 대로 체험이 된다면 바로 그 열매를 먹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두려움 극복하고 싶어요

질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신에 대한 착을 갖고 있어 갖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병이 찾아오더라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채찍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